반도체

Sector Issue Brief 2025.11.21

DRAM 재고, 공급자와 구매 업체 모두 축소

Check Point

- DRAM 재고, 공급자와 구매 업체 모두 축소
-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B2C 수요 약세
- 메모리 가격 상승 Cycle 초기로 우려 제한

| Analyst **차용호** | yonghocha@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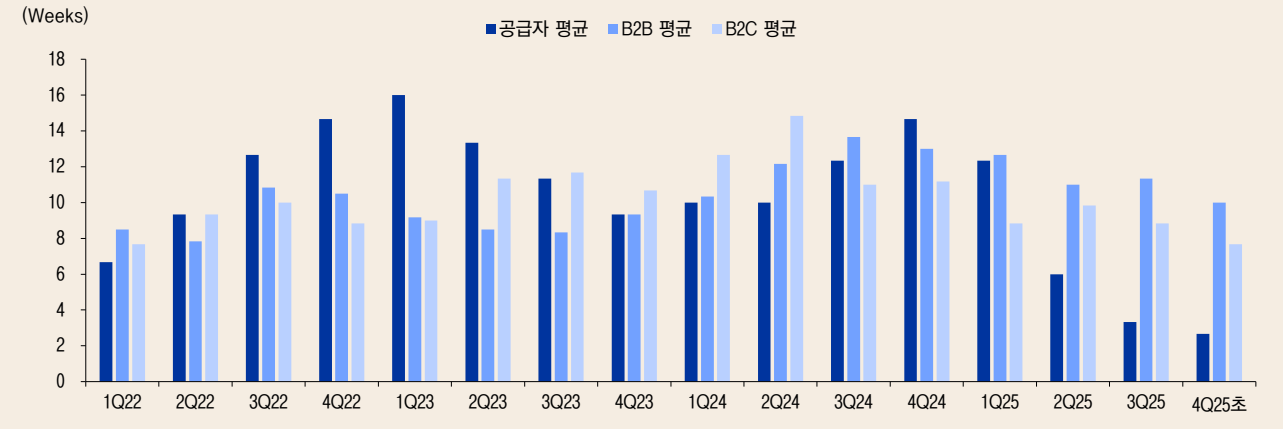
DRAM 재고, 공급자와 구매 업체 모두 축소

Trendforce에 따르면 4Q25초 DRAM 공급자 재고 평균은 3.3주→2.7주로 추가적인 감소가 이루어졌다. 3Q25말 대비 SK하이닉스와 Micron은 2주의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비교적 재고가 높던 삼성전자는 6주→4주로 축소되었다. 구매 업체들도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평균 DRAM 재고가 10.1주→8.8주로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구매 업체들은 높은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B2B에서는 미국 대비 중국 CSP업체들이 낮은 협상력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 인상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B2C 수요에서는 NB 및 PC 업체들 대비 스마트폰 업체들은 빠른 교체 주기 및 엄격 재고 관리로 인해 낮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4Q25 계약가는 LPDDR(5X) +68%YoY, LPDDR4(X)+83%YoY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2C 수요가 약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아직 가격 상승 Cycle 초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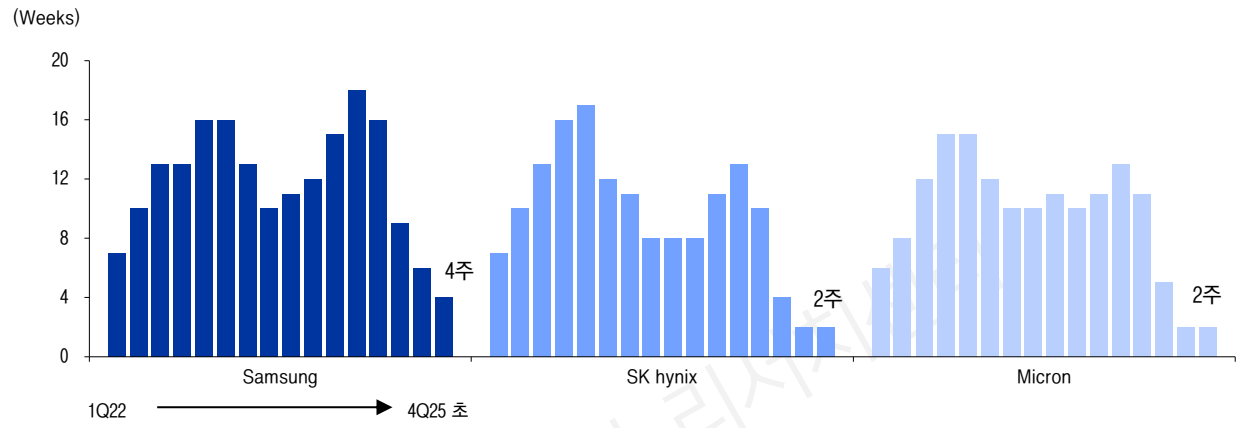
다만, 메모리 가격 급등은 B2C 수요 약세로 이어지며 Trendforce는 2026년 Set 출하량 전망치를 Smartphone은 +0.1%YoY→-2.0%YoY, NoteBook은 +1.7%YoY→-2.4%YoY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다. 메모리 비용 상승 속에서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Set 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근 소비 여력이 좋지 않아 가격 전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B2B 수요는 강할 때 장기간의 계약과 중복 주문이 쏟아지며 강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빅테크 업체들의 재고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B2B 수요는 선형적 감소가 아닌 오더컷의 형태인 절벽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추후 완충 역할을 해줄 B2C 수요가 약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 Cycle 초기인만큼 아직은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림1 **DRAM 재고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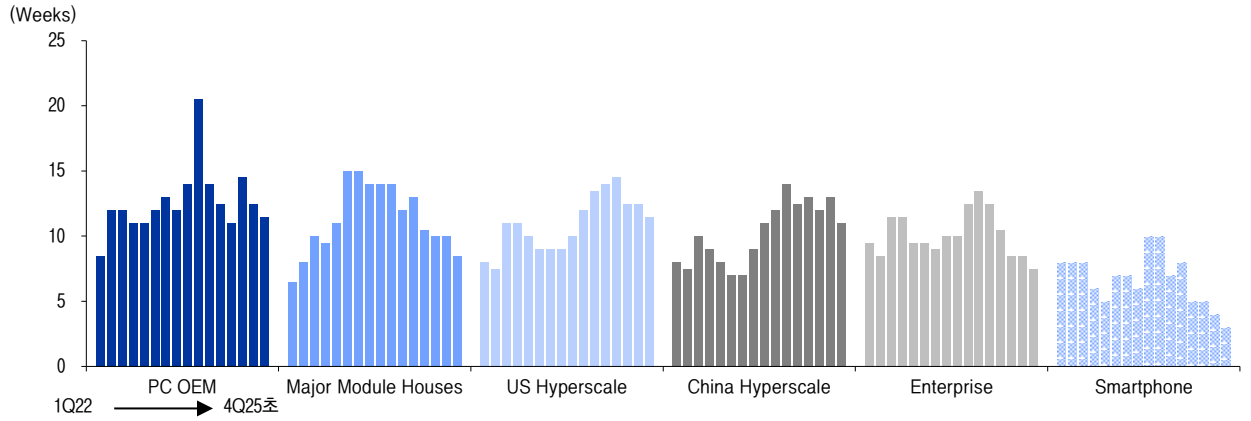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DRAM 공급자들 재고 추이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DRAM 구매업체들 재고 추이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Smartphone BoM Cost 상승 변화

	High-End	Mid-Range	Low-End
BOM cost	US$450+	US$250~350	US$80~150
Memory Specifications	12~16GB 512GB~1TB	8~12GB 256~512GB	4~8GB 64~256GB
DRAM+NAND BOM % in 4Q24	10~13%	10~13%	12~15%
DRAM+NAND BOM % in 4Q25	15~20%	15~2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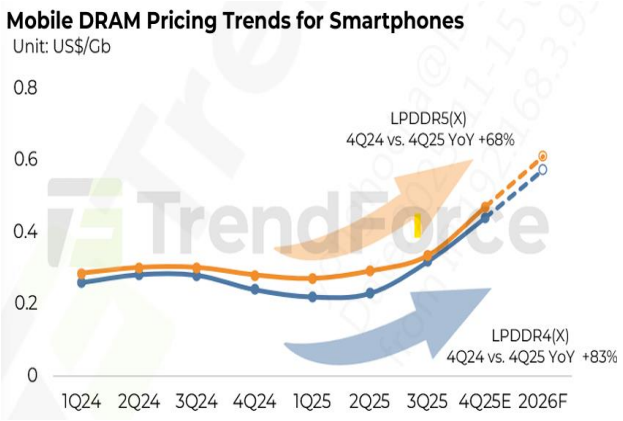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NB BoM Cost 상승 변화

	High-End	Mid-Range	Low-End
MSRP	$1,500	$900	$500
Specifications	32GB / 1TB	16GB / 512GB	8GB / 256GB
BOM Cost Increase (1Q25 vs. 3Q26)	$116	$71	$36
BOM Cost Increase (1Q25 vs. 3Q26)	12%	12%	10%
DRAM+SSD BOM % in 3Q26	23%	21%	20%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LPDDR 가격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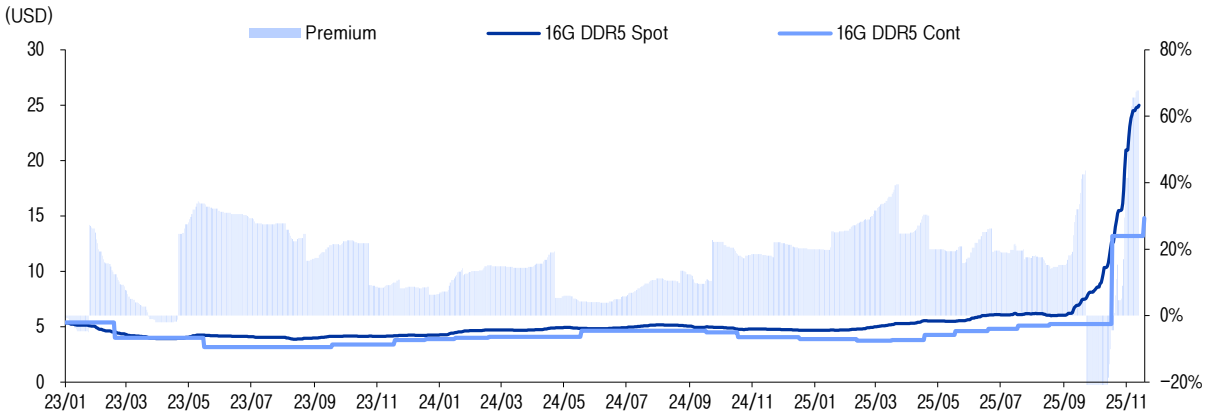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Trendforce Set 출하량 전망치 조정 내역

(단위: Mil Pcs)		2025		2026	
		수정	이전	수정	이전
스마트폰	생산량	1,243	1,229	1,218	1,230
	YoY	1.60%	0.50%	-2.00%	0.10%
노트북	생산량	182.8	180.0	178.5	183.0
	YoY	3.60%	3.50%	-2.40%	1.70%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16Gb DDR5 가격 추이



자료: Trendforc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차용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2.4 % 7.6 %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 1 ~ 2024.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